

# 세계 문학 거장들과 맞는 '아시아의 아침'

문화전당 '아시아 문학 페스티벌' 내달 1일~4일

노벨문학상 웰레 소잉카·고은 시인 등 대거 참여



웰레 소잉카 고은 시인 나윤선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웰레 소잉카 등 세계 문호들과 고은 시인을 비롯한 국내 작가들이 광주에 모인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방선규)은 내달 1일부터 4일까지 세계의 문호들과 시인이 함께하는 아시아 문학 축제인 '아시아 문학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문학페스티벌(조직위원장 고은)에서는 제1회 아시아문학상 수상자 발표와 문학 거장들의 특별강연, 아시아작가들과 함께 하는 포럼, 시인과 함께하는 사랑방 등이 열리는 지성과 시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연대의 장이 될 전망이다.

이번 페스티벌 주제는 '아시아의 아침'이다. 아시아의 역사적 상처와 기억들을 치유하고 승화하는 새로운 시민 축제를 계기로 아시아 각지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취지다. 압담한 식민지 시절 한국 시인이 아시아를 향해 부른 최초 노래는 '아시아의 밤'이었다. 3·1

운동 직후 현실을 '폐허'로 인식한 시 운동의 상황에서 공조 오상순이 노래한 데서 연유한 것으로, 1세기 뒤 한국 문인들이 앞장서 새로운 아시아 정신을 구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1986년 아프리카 최초 노벨상 수상자인 웰레 소잉카를 비롯한 세계 거장 5명, 노이슈타트 국제문학상을 수상한 중국의 뒤뉘 등 아시아 작가 5명, 한국의 고은과 현기영 등 문인 20명이 참가해 대축전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공식 일정은 내달 1일(오후 2시) 참가자들의 국립5·18민주묘지 방문으로 시작된다. 해외 초청작가, 국내 초청 작가 등 내

외빈들의 망월 묘지 참배와 아시아문화전당 투어, 초청 작가 환경리셉션이 진행된다.

2일(오후 2시~4시30분)에는 강연 및 포럼이 펼쳐진다. 세계거장 특별강연 '낮은 목소리 큰 질문'의 순서로 강연이 이어진다. 스페인 작가 안토니오 폴리나스의 '혼돈의 세계를 뚫고가는 시-과거'에는 인도네시아 아우 우타미와 한국의 이택광 평론가가 패널로 참여한다. 남아공의 시인 브레이튼 브레이튼바흐의 '혼돈의 세계를 뚫고가는 시-현재'에는 몽고의 우리양카이, 한국의 조진태 시인이 패널로 나선다.

이어 저녁(8시~9시30분)에는 나윤선·고은의 노래와 시의 하모니 '산과 바다에 우리가 살고' 특별공연이 펼쳐진다. 3일에는 국내외 작가들의 교류와 소통을 위한 날로 전라도 기행이 실시된다. 초청 작가들은 무등산 서석대, 소쇄원, 죽녹원 등을 둘러보며 남도의 아름다움과 문화를 체험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4일(오전 10시30분)은 문학 페스티벌 본 대회인 '아시아의 아침' 막이 오른다. 고은의 대화사, 문체부장관 도종환 시인의 '아시아의 아침을 위한 축사', 웰레 소잉카의 메시지, 아시아문학상 시상식, 축하 공연 등이 예정돼 있다.

이어(오후 2시30~5시30분) 노벨상 수상작가인 웰레 소잉카의 기조강연 '아프리카가 아시아에게', 고은과 웰레 소잉카의 대담 '해돋이가 당신의 등불을 끄게 하라'가 예정돼 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의 아침, 민주, 인권, 평화의 진전을 위하여' 선언문을 채택한 뒤 대대원의 막을 내린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광주·전남 세외수입 과·오납 220억 환급이자만 1억여원 '혈세 낭비'

최근 5년간 광주시와 전남도의 세외수입 과·오납이 2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 이자만 1억여원 가까운 혈세가 낭비됐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민주당·경기 광주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세외수입 환급이자 지불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 세외수입 과·오납 환급금은 광주가 91억여원, 전남이 127억여원으로 총 219억3327만원에 달했다.

과·오납은 더 많이 낸 과납(過納)과 잘못 납부한 오납(誤納)을 말한다.

연도별로 광주는 2012년 27억여원, 2013년 28억여원, 2014년 20억여원, 2015년 6억여원, 지난해 9억여원 등이

다. 전남은 2012년 7억여원이던 것이 2013년 19억여원으로 경종 뛰었다가 2014년 13억여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이듬해 35억여원, 지난해 51억여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에 따른 세외수입 환급이자 지불액은 5년간 광주는 6506만원, 전남이 2017만원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세외수입 과오납 환급이자가 발생한 것은 과오납금을 조기에 돌려주지 못한 자치단체 책임이 크다"며 "환급이자 발생이 곧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바닥 드러낸 저수지 99곳...전남 40곳 최다

곡성·구례 물부족 극심

국내 저수지 99곳은 최근 5년 동안 한 차례 이상 바닥을 드러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40곳은 농도 전남에 위치했으며, 곡성·구례에 위치한 저수지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연속 매년 한 차례 이상 바닥을 드러냈고, 경남 밀양의 가산저수지, 경북 경주 산대저수지도 3년 연속 바닥을 드러내면서 주변 농민들이 극심한 물부족을 겪었다. 최근 5년간 2번 이상 저수율이 0%였던 저수지도 20곳에 달했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태홍 의원이 한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중 최저 저수율이 0%를 기록한 저수지는 99개소로, 연평균 저수지 20곳 이상이 바닥을 드러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40곳으로 가장 많았다. 경북지역 저수지 18곳, 경남 17곳, 경기 10곳, 강원 6곳, 전북 6곳, 충남 2곳

도 지난 5년간 한차례 이상 바닥을 드러냈다. 3년 연속 한차례 이상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도 여러 곳이다. 곡성·구례에 위치한 대지 저수지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연속 매년 한 차례 이상 바닥을 드러냈고, 경남 밀양의 가산저수지, 경북 경주 산대저수지도 3년 연속 바닥을 드러내면서 주변 농민들이 극심한 물부족을 겪었다. 최근 5년간 2번 이상 저수율이 0%였던 저수지도 20곳에 달했다.

저수지 수해 면적으로 보면 5년간 2만 ha에서 용수공급이 차질을 빚었는데, 경기가 6528ha로 피해 면적이 가장 넓었고, 경남 4325ha, 전남 3127ha 순이었다. 전남의 경우 최근 5년간 최저 저수율(0%) 저수지 피해면적은 2014년 451ha, 2015년 686ha, 2016년 780ha, 2017년 1210ha로 급증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

## 전남도 평생학습 박람회 20~21일 도청 일대서 열려

전남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20~21일 이틀간 전남도청 일대에서 '제1회 전남도 평생학습 박람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함께하는 평생학습, 행복한 전남'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전남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다.

전남지역 평생학습 기관·단체가 참가해 평생학습 홍보체험관 운영, 학습동아리 경연·작품 전시, 성인 문해(文解) 시화전, 어린이 그림대회 행사 등이 펼쳐진다.

### 부동산 투자!

- 법적보장(소유권/근저당 등)
- 연 30% 이상 순수익 가능
- 경매노하우 10년

문의 H.010-3605-5000

**서울구치소 독거실 내부**

박근혜 대통령,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방(거실)을 구치소측이 개조해 만든 독거방에 수용 중

전체 면적: 10.08㎡ (약 3.05평)  
 생활공간: 약 8㎡ (약 2.3평)  
 조도 낮은 취침동 (저녁에 켜 놓는 취침등)  
 생필품: 관물대, 책상, 책상검침상, 출입문, 난방 가능 바닥 (바닥을 닦는 운물 방식)  
 ※ 실제 내부 배치와 다를 수 있음  
 시키는 목방 안에서 해결. 식사가 끝나면 세면대에서 식판과 식기를 씻기 위해 반납 운동 방식)  
 오전 6시 기상, 오후 8시 취침

## 인권침해 주장 박근혜 6~7인용 방 혼자 사용

구속기소 돼 재판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고 미국 CNN 방송이 17일(현지시간)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법무부와 서울구치소 등의 말을 종합하면 박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방(거실)을 구치소 측이 개조해 만든 방을 혼자 사용하고 있다.

독방 면적은 10.08㎡(약 3.05평)이며, 화장실과 세면장을 제외한 방 실내 면적은 약 8㎡(약 2.3평) 규모이다. 방 크기를 제외하고는 방에 비치되는 집기 종류와 식사, 일과 등 다른 조건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설장비 점검 광주 북구청 건설과 직원들이 18일 문흥동 제설차재보관소에서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 제설차량 살포기 시험가동을 하는 등 제설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도, 농어촌학교 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전남도가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위기에 빠진 농어촌 교육을 위해 국회에 '농어촌 학교 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에서는 2007년 이후 지난 10년간 182개 학교가 통·폐합됐다.

학생 수가 2007년 29만2000명에서 2016년 21만3000명으로 27%인 7만9000명이 줄었기 때문이다.

전남의 농어촌과 도서벽지 학교는 전체 학교의 76%에 달한다. 농어촌학교를 지원하는 특별법이 어느

지역보다 시급하지만 관련 법 제정에는 진전이 없다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지난해 6월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안을, 같은 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농어촌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발이 묶여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

###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 태양광 발전소 삽니다! 팝니다!

**태양광 100K·200K·300K·500K·1메가**

- ▶ 견적 설계 · 시공(지상 임야 노지, 아파트, 주택)
- ▶ 태양광 부지 매입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관리 전문**

- ▶ 각도 조절, 잡초 제거(물막, 애초기)
- ▶ 모듈 청소(발전량 상승) 관리해드립니다.

**태양광 발전 전문기업**

※ 영업사원 모집

**(주)동현태양광ENG**  
 ☎ 063-225-1116  
 상담 010-8813-4770

## 착한보청기

#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